

부모의 애착유형 결합형태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ombined parental attachment style on children's self-esteem & interpersonal relationship

문예원 글로아이 전임교원 김미선**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영희***

Moonyewon Glo-i.
Full time teacher: Kim, Mi-Sun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
Professor: Kim, Yeong-Hee

목 차

I. 서론

IV. 논의 및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 결과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e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style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children. **Method:**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17 elementary school

* 이 논문은 2018년 주저자(som9239@hanmail.net)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2018년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2018년 11월 9일)에서 발표된 포스터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주저자: som9239@hanmail.net

*** 교신저자: enjoy@cbnu.ac.kr

(Acknowledgement : The author(s) declare(s) that there is no conflict of interests regarding the publication of this article)

students. **Results:** As for the combined parental attachment type, stable attachment to father-stable attachment to mother recorded the highest percentage, followed by unstable attachment to father-unstable attachment to mother, stable attachment to father-unstable attachment to mother, and unstable attachment to father-stable attachment to mother.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teachers were the most positive when their combined parental attachment type was stable attachment to father-stable attachment to mother, but were the least when their combined parents attachment type was unstable attachment to father-unstable attachment to mother. In addition, there were the interaction effects of combined parental attachment type and self-estee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children, main effect and interaction effect were found in combined parental attachment type and self-esteem. Compared to the group with lower self-esteem, the group with higher self-esteem showed higher level of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teachers, and this difference between groups was more prominent in children with combined parental attachment type shown as unstable attachment to father-stable attachment to mother.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d the significance of stable attachment to parents for children's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s well as children's self-esteem to moderate the negative influence of unstable attachment to parents.

주제어(Key words) : 부모의 애착유형 결합형태(Parental Attachment Style), 자아존중감(Self-Esteem), 친구관계(Friend Relationship), 교사관계(Teachers Relationship)

I. 서론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전 생애를 통해 인간의 성장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애착은 생애초기 어머니 혹은 주 양육자와 강하게 느끼는 애정이나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말하며, 자신과 주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 되어 자아발달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에 핵심적인 내적작동모델이 된다(Bowlby, 1979). 아동들은 내적작동모델을 통하여 대인관계에서의 기대, 동기, 적응행동을 발달시키고, 이를 사회적 상호작용에 적용시키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Bretherton & Munholland, 2008). 그러므로 부모

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자기가치감이나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타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신뢰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Lee, 2006; Sroufe & Fleeson, 1986).

특히 학령기 아동은 학령전기 아동에 비해 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발달적 전환기에 있다(Yoon, 2001). 이 시기의 아동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기존의 부모나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친구와 집단을 형성하고 우정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상호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친구와의 관계를 점차 중요시하고, 그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얻게 된다

(Buhrmester & Furman, 1987). 이때 아동의 사회 관계 영역이 넓어지면서 친구 및 교사와의 긍정적이고 친밀한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가진다.

선행연구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초기와 중기 아동기를 지나면서 개인 내적, 그리고 대인관계상의 기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잘 보여주고 있다(Al-Yagon, 2012; Allen, 2008; Engels, Finkenauer, Dekovic, & Meeus, 2001). Rosenberg(1995)는 부모와 친밀한 애착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은 부모와 거리감을 느끼는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정서조절과 사회성이 높게 나타났고,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 적응력이 높게 나타나(Al-Yagon, Kopelman-Rubin, Brunstein Klomek, & Mikulincer, 2016), 친구관계와 교사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Yun, 2010; Jang, 2008). Scharf와 Bartholomew(1994)는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과 상황, 감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친구와의 불화, 우울, 불안, 문제행동, 그리고 자아존중감 문제와 같은 다양한 부적응 차원과 구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Irons & Gilbert, 2005; Muris, Meesters, & Van den Berg, 2003; Song, Thompson & Ferrer, 2009).

특히 부모에 대한 애착은 개인의 내적작동모델의 형태로 지속되어 자아를 발달시키며 자아존중감을 촉진하기 위한 안전 기지를 제공해 준다(Kim, 2018). 이때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자아구조의 핵심이 되어서 자기 존재를 가치 있게 느끼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신뢰하면서 자아존중감의 틀을 완성해 간다(Laible, Carlo, & Roesch, 2004).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대인관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어떤 내적 기준이나 기대와 비교하여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자아개념의 일부로서(Harter, 1985; Rosenberg, 1965), 하나의 특별한 객체, 즉 자아에 대한 긍정,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된다(Rosenberg, 1965).

부모와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Lim(2010)은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인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쪽과 애착이 안정적인 것보다는 부모 모두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Steinberg(2001)도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긍정적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며 부정적이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제가 되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Park(2015)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높아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제한점이 있어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들은 자신의 장점이 많고 유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반면, 스스로를 단점이 많고 나약하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Bak, Lee, & Song, 2010). 또한 자아존중감은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사이에 조절의 효과도 가진다.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해 주었고(Gomez & McLaren, 2007), 학교적응에도 조절효과를 보여주었으며(Seo, 2013), 사회적 불안에도 조절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McCarroll et al., 2009). 그러나 부모와의 애착유형이 아동의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부모와의 애착유형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애착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대부분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Jhon & Yoo, 2014; Lee, 2011) 아버지와 애착은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Bretherton, 2010; Freeman, Newland, & Coyl, 2010). 그러나 Moseley와 District(1996)에 따르면 사회가 발달하고 육아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나누며 고민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버지와 애착도 어머니만큼 반응적이며 유능하다고 한다. 또한 유아기 이후인 아동기에는 부모 모두에 대한 애착관계가 중요하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초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차이로 인해 질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영향력은 동일하다고 한다(Grossmann et al., 2002; Van IJzendoorn, Sagi, & Lambermon, 1992).

이는 어머니들이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나 낙담할 때 돌봐주고 지지해줌으로써 일종의 심리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 아버지들은 위험감수와 탐색,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접근하는 자세를 권장하는 사회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Grossmann et al., 2002; Paquette & Bigras, 2010). 또한 아버지와 애착이 안정적인 때 친구관계, 교사관계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대인관계에서 어머니와의 애착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애착도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하고 있다(Park & Cheon, 2008; Yun, 2010). 아버지와 자녀의 애착이 긍정적인 때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 적응, 친구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 Shin, 2006). Jeon과 Lee(2018)는 아버지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원활

하게 지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Choi(2003)는 자녀가 아버지와 애착을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합리적으로 형성하는 경우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부모와의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와 관련성이 높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유형을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나누어 각기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어 부모의 애착유형 결합형태에 따른 완충효과(buffering effect)를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다. 즉, 한쪽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경우에는 다른 쪽 부모의 안정형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부모애착과 친구관계,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를 단편적으로만 살펴보고 있어 이들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학령기 아동에게 교사는 정서적 지원과 안전 기지가 된다는 것이 애착이론의 관점임에도 불구하고(Hamre & Pianta, 2006)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와의 애착유형을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분류하고, 결합하여(부 안정형-모 안정형, 부 안정형-모 불안정형, 부 불안정형-모 안정, 부 불안정형-모 불안정형), 자아존중감에 따라 부모와의 애착유형 결합형태가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아동의 대인관계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 학교교육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아동·가족상담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애착유형과 그 결합형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애착유형 결합형태가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C시에 소재한 6개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다니는 학생 8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학생은 406명(49.7%), 여학생 411명(50.3%)이었고, 학년은 5학년 371명(45.45%), 6학년 446명(54.6%)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 이하 127명(19.7%), 전문대 졸업 135명(21.0%), 대학교 졸업 271(42.1%), 대학원 졸업 111명(17.2%)으로 나타났고, 어머니 학력은 고졸 이하 155명(24.0%), 전문대 졸업 136명(21.1%), 대학교 졸업 256명(39.7%), 대학원 졸업 98명(15.2%)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은 관리/전문직 169명(22.0%), 사무직 318명(41.4%), 판매/서비스/생산직/농수산/시간제 271명(35.3%), 무직 10명(1.3%)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직업은 관리/전문직 167명(21.6%), 사무직 166명(21.5%), 판매/서비스/생산직/농수산/시간제 164명(21.3%), 주부 275명(35.6%)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경제수준은 잘 사는 편 273명(33.7%), 보통 526명(64.9%), 못 사는 편 12명(1.5%)으로 나타났고, 학교성적은 70점미만은 73명(9.1%), 71점-80점 132명(16.4%), 81점-90점 253명(31.5%), 91점-100점 346명(43%)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애착유형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IPPA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Gullone과 Robinson(2005)이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한 부모 애착 척도를 Kim(2018)이 번안하고 사용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세 차원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에 부합하지 않은 7문항을 제외하고 21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아버지의 의사소통 내적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76, 신뢰감은 .90, 소외감은 .81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75, 신뢰감은 .89, 소외감은 .80이었다.

2)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을 Jeon(1974)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나는 내 자신을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문항이 신뢰도가 낮아 삭제하고 총 9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3) 대인관계

(1) 친구관계

친구관계는 Gullone과 Robinson(2005)이 Armsden과 Greenberg (1987)가 개발한 또래애착 척도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R)를 수정하여 새로 개정한 척도를 Kim(201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내적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2) 교사관계

교사와의 관계는 Kim(2010)이 타당화 작업을 거친 학생-교사에착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내적신뢰도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의 애착유형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아동의 대인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ANOVA)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와의 애착유형과 애착유형 결합 형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착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비계층적 군집화 방법인 K-means Cluster를 이용하였다. K-means Clusters는 군집의 수를 사전에 지정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K는 군집의 수를 의미한다(Lee & Lim, 2015). <Table 1>에서와 같이 군집은 의사소통과 신뢰감을 안정형의 기준으로, 소외감을 불안정형의 기준으로 삼아 분류하였다. 즉, 의사소통과 신뢰감의 평균 점수가 높고 소외감 평균 점수가 낮으면 ‘안정형’, 의사소통과 신뢰감의 평균 점수가 낮고 소외감 평균 점수가 높으면 ‘불안정형’으로 명명하여 분류하였다(Gullone & Robinson, 2005)

1) 부모의 애착유형 결합형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부모의 애착유형별 빈도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 K-Means Cluster of Parental Attachment Style

Types	Variables	Mean (SD)	Group Means(SD)		t-value
			Insecure Group	Secure Group	
Father	Trust+ Communication	2.66(.45)	2.51(.34)	2.95(.34)	-32.18***
	alienation	1.65(.55)	2.12(.51)	1.40(.51)	27.59***
Mother	Trust+ Communication	2.74(.44)	2.51(.34)	2.90(.36)	-27.13***
	alienation	1.68(.54)	2.12(.49)	1.40(.23)	28.33***

군집분석 결과,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애착유형은 안정형 474명(58.0%), 불안정형이 343명(42.0%)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은 안정형 525명(64.3%), 불안정형 292명(35.7%)이었다. 부모의 애착유형 결합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버지와의 애착유형과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에 대해 ²값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유형 결합형태는 부 안정형-모 안정형 393명(48.1%), 부 안정형-모 불안정형 132명(16.2%), 부 불안정형-모 안정형 81명(9.9%), 부 불안정형-모 불안정형 211명(25.8%)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와의 애착유형과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부모의 애착유형 결합형태가 부 안정형-모 안정형과 부 불안정형-모 불안정형과 같이 부모와의 애착유형이 일치하는 경우가 73.9% 이었고, 부 안정형-모 불안정형, 부 불안정형-모 안정형과 같이 부모와의 애착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26.1%로 나타났다.

Table 2. Grouping of Parental Attachment Style

	Total n	Secure n(%)	Insecure n(%)
Father	817	474(58.0)	343(42.0)
Mother	817	525(64.3)	292(35.7)

Table 3. Grouping of Combined Parental Attachment Style

	Father	Attachment style		Total n (%)
		Secure n(%)	Insecure n(%)	
Attach- ment style	Secure	393(48.1)	132(16.2)	817 (100.0)
	Insecure	81(9.9)	211(25.8)	

2) 아동의 자아존중감 분포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평균점으로 분류하였다

(M=3.20).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 4. Level of Children's Self-Esteem

	Self-Esteem		Total n(%)
	High	Low	
Frequency(%)	439(53.7%)	378(46.3%)	817(100.0)

2. 부모의 애착유형 결합형태와 자아존중감에 따른 친구관계

아동의 애착유형 결합형태와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친구관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5>와 같고, 이원변량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5>에서 보면 친구관계는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평균 3.48, 낮은 집단은 2.68이었으며, 부모의 애착유형결합에 따라서는 부 안정-모 안정의 평균 3.49, 부 안정-모 불안정의 평균 3.14, 부 불안정-모 안정의 평균 2.65, 부 불안정-모 불안정의 평균 2.88로 나타났다.

<Table 6>에서 보면 아동의 친구관계는 애착유형과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애착유형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의 애착유형에 따른 이러한 차이가 어느 집단 간에 나타난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비교를 위한 scheffe 검증을 한 결과 부 안정-모 안정집단인 경우 친구관계에서의 친밀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 안정-모 불안정, 부 불안정-모 불안정, 부 불안정-모 안정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살펴보기 위해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에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에 따른 친구관계의 차이는 부 불안정-모 안정 집단에서 가

장 크게 나타났고, 부 안정-모 불안정, 부 불안정-모 불안정 집단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부 안정-모 안정형 집단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즉, 부 불안정-모 안정형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아동의 친구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부 안정-모 불안정, 부

불안정-모 불안정, 부 안정-모 안정집단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친구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5. Means, Standard Deviations, t-Value of Combined Parental Attachment Style, Children's Self-Esteem, & Relationship with Friends

self-esteem	N	combined parental attachment style								Total M(SD)
		secure with F/ secure with M M(SD)	n	secure with F/ insecure with M M(SD)	n	insecure with F/ secure with M M(SD)	n	insecure with F/ insecure with M M(SD)	n	
High	439	3.57(.58)	266	3.41(.58)	55	3.40(.63)	58	3.24(.71)	60	3.48(.61)
Low	378	3.12(.67)	61	2.82(.89)	46	2.23(.98)	104	2.74(.77)	167	2.68(.88)
Total	817	3.49(.62)	327	3.14(.79)	101	2.65(1.03)	162	2.88(.78)	227	3.11(.85)
t		5.26**		4.02**		8.10**		4.40**		

Table 6. Effects of Combined Parental Attachment Style & Self-Esteem on Relationship with Friends

	SS	DF	MS	F
Combined Parental Attachment Style(A)	26.06	3	8.69	16.77**
Self-Esteem(B)	66.44	1	66.44	234.70**
A*B	5.885	3	4.32	8.35**
SE	419.24	809	.518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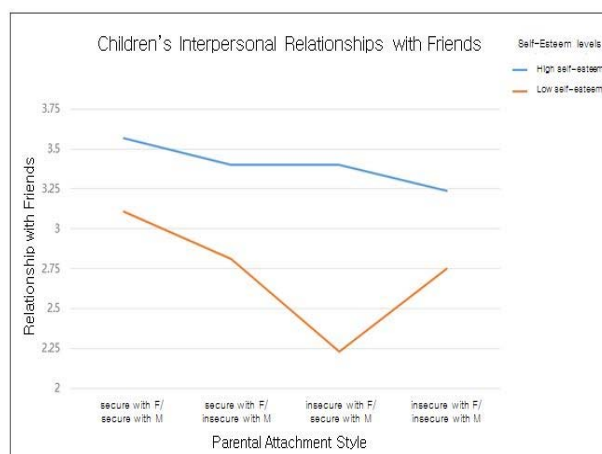


Figure 1. Effects of Combined Parental Attachment Style & Self-Esteem on Relationship with Friends

3. 부모의 애착유형 결합형태와 자아존중감에 따른 교사관계

아동의 애착유형 결합형태와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교사관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7>과 같고, 이원변량분석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7>에서 보면 교사관계는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평균 3.36, 낮은 집단은 2.99이었으며, 부모의 애착유형 결합형태에 따라서는 부 안정-모 안정의 평균 3.44, 부 안정-모 불안정의 평균 3.10, 부 불안정-모 안정의 평균 3.15, 부 불안정-모 불안정의 평균 2.91로 나타났다.

<Table 8>에서 보면 아동의 교사관계는 애착유형 결합형태와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애착유형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의 애착유형 결합형태에 따른 이러한 차이가 어느 집단 간에 나타난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비교

를 위한 scheffe 검증을 한 결과 부 안정-모 안정 집단인 경우 교사관계에서의 친밀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부 불안정-모 불안정 집단이 교사관계에서 친밀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부 안정-모 불안정 집단, 부 불안정-모 안정 집단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살펴보기 위해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2>와 같다. <Figure 2>에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에 따른 교사관계의 차이는 부 불안정-모 안정 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부 안정-모 불안정, 부 불안정-모 불안정 집단에서 차이가 부 불안정-모 안정형 집단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즉, 부 안정-모 안정형 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아동의 교사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부 불안정-모 불안정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교사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7. Means, Standard Deviations, t-Value of Combined Parental Attachment Style, Children's Self-Esteem, & Relationship with Teachers

self-esteem	N	combined parental attachment style								Total M(SD)
		secure with F/secure with M M(SD)	n	secure with F/insecure with M M(SD)	n	insecure with F/secure with M M(SD)	n	insecure with F/insecure with M M(SD)	n	
High	439	3.52(.56)	266	3.20(.58)	55	3.11(.57)	58	3.06(.62)	60	3.36(.61)
Low	378	3.06(.54)	61	2.99(.56)	46	3.18(.61)	104	2.86(.59)	167	2.99(.60)
Total	817	3.44(.59)	327	3.10(.58)	101	3.15(.60)	162	2.91(.60)	227	3.19(.63)
t		5.75***		1.79		.68		2.22*		

Table 8. Effects of Combined Parental Attachment Style & Self-Esteem on Relationship with Teachers

	SS	DF	MS	F
Combined Parental Attachment Style(A)	10.387	3	3.462	10.249***
Self-Esteem(B)	5.759	1	5.759	17.046***
A*B	5.885	3	1.962	5.807***
SE	273.298	809	.338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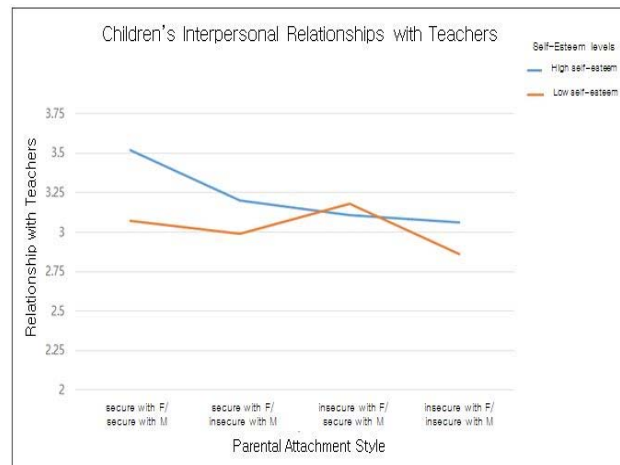


Figure 2. Effects of Combined Parental Attachment Style & Self-Esteem on Relationship with Teachers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애착유형은 아버지의 경우 안정형(58%)이 불안정형(42%)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어머니 또한 안정형(64.3%), 불안정형(35.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안정형이 많은 분포를 보였다. 부모의 애착유형 결합형태는 부 안정형-모 안정형이 가장 높았고, 부 불안정형-모 불안정형, 부 안정형-모 불안정형, 부 불안정형-모 안정형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유형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서 안정형 유형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Al-Yagon(2014)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에 대해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비율보다 어머니에 대한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안정형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아동들의 애착유형을 분석한 결과 안정애착 62%, 회피애착 26%, 저항애착 8%, 분류할 수 없

음 4%를 보고한 연구결과(Green, Stanley, Smith, & Goldwyn, 2000)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반면 부모와의 애착유형 결합형태에서도 부모 모두 불안정형인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이 부모를 안전기지로 삼기 어렵다는 선행연구(Liable & Thompson, 2007; Oppenheim, Koren-Karie, & Sagi-Schwartz, 2007)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부모와 정서적 대화를 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영향력이 더 크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부모나 가족 이외의 제 2가족(secondary family), 즉 친구나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현대에는 점점 더 증가한다는 Konshina(2016)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와의 애착유형 결합형태가 부 안정형-모 안정형인 경우 대인관계인 친구관계와 교사관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부 불안정형-모 불안정형일 때는 친구관계와 교사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나 부모의 애착유형 결합형태에 따라 아동의 대인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모와의

애착유형 결합형태에 따라 아동의 대인관계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개인별 특성에서는 알 수 없었던 부모의 애착 간의 결합에 의해 새롭게 드러난 경향 중 하나는 부모 중 한 사람은 안정형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불안정형인 혼합형의 부모의 경우 안정형만으로 이루어진 부모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아동의 대인관계에 안정형과 크게 차이하지 않은 점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혼합형 부모의 경우 안정형의 배우자가 불안정한 배우자의 역기능적 특성을 상당 부분 보완해 주는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이 모두 안정적인 집단은 부모 둘 중 하나가 불안정한 집단보다 학업과 친구관계, 학교생활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Jung(200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애착은 아동이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선행연구(Seo & Lee, 2014)와 일치하며,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높은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친구관계가 좋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Kim(2009)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를 살펴본 Kwak(2011)의 연구 결과 중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부애착의 영향력이 모애착의 영향력보다 크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Bar-Heim et al., 2007)와 유아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애착표상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애착표상과는 독립적이라는 주장(Paquette, 2004; Parke, 2000)을 본 연구는 지지해 준다. 즉, 아동은 아버지와의 안정 애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Chae, 2009). 최근에는 젊은 세대 아버지를 중심으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는 등 양육자적

역할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도 변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와의 애착의 중요성, 즉 정서적인 측면의 아버지 역할을 강조해 준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유형 결합형태 중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안정적인 때 아동의 교사관계가 높게 나타났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부모 이외에 사회·정서적 관계의 대상이 늘어나게 되는데, 특히 아동에게 사회·정서적 안정을 제공해 주는 교사와의 애착은 부모와의 애착이 바탕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해 준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된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감이 있고 학교에 쉽게 적응하며, 교사 및 또래들과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학업수행을 잘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McDevitt & Ormrod, 2010)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교사와의 관계를 안정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하다고 인식한 경우 교사와의 관계도 불안정한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선행연구(Lynch, Cicchetti, 1992)를 지지해 준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인수록 아동이 교사관계, 또래관계에서 적응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Wang & Kim, 2004)와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Wyrick과 Rudasill(2009)은 부모가 자녀를 편안하게 해주며 관심을 가지고,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교사와 아동 간 갈등이 적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때 아동은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에도 부모와의 안정애착을 전이시켜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부모와의 애착유형 결합형태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 본 결과, 부모와의 애착유형과 자아존중감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친구관계와 교사관계 수준이 높은데, 이 두 집단의 차이는 부 불안정형-모 안정형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 불안정형-모 안정형의 애착유형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들은 친구관계가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들은 친구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들은 교사관계가 낮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들은 교사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유형 결합형태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대인관계 수준이 높은데, 이 둘 간의 차이는 부 불안정-모 안정형에서 훨씬 더 두드러진다. 친구관계에서 부모 모두가 안정집단일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 두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부 불안정형-모 안정형에서만 큰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부모와의 애착유형 결합형태에 따라 친구관계가 대체로 일정했으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의 경우 부 불안정형-모 불안정형의 애착유형에서 아동의 친구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애착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결합이 일치되는 경우에는 부애착과 모애착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화됨을 시사하며,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학교친구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Kang, 2013)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아동들은 친구들과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관계하며, 친구들에게 지나친 지지와 관심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친밀감을 쉽게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관계에서 친밀감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아동의 부모와의 애착유형이 부 안정형-모 안정형, 부 안정형-모

불안정형, 부 불안정형-모 불안정형, 부 불안정형-모 안정형인 순으로 친구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유형이 부 안정형-모 안정형인 경우 아동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가장 친밀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아동의 또래관계가 친밀하다는 선행연구(Kwak, 2011; Lee, 2005; Lee, 2006)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한편,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고, 부모와의 애착유형이 모두 불안정할 때 아동은 타인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져 있다(Jung & Kim, 2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애착유형이 부 불안정형-모 불안정형인 집단보다 부 불안정형-모 안정형인 집단에서의 친구관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친구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효능감, 유능감, 자아존중감이 중간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Cho, 2002; Lee & Chung, 2006)와 연관 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Lee(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애착보다는 또래 애착이 친구관계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으며, 부모와의 애착 유형이 불안정형이고 학급 홈페이지 이용 횟수가 높은 아동들이 부모와의 애착 유형이 안정형이고 학급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횟수가 적은 아동에 비해 친구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난 Oh(2014)의 연구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초등학생의 메신저 사용과 교우관계를 살펴본 Kim(2005)의 연구와 고등학생의 인터넷 메신저 CMC 이용량과 대인관계를 살펴본 Sung(2009)의 연구에 의하면, 온라인에서 대화하는 상대의 수가 많아질수록 친구간의 친밀도가 증가하여 실제 친구관계가 좋고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인터넷 메신저와 학급 홈페이지는 종류가 다르지만, 온라인에서 의사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

에서 맥락을 같이 하므로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유형 결합형태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교사관계에 미치는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은 부모와의 애착유형 결합형태에 따라 교사관계가 대체로 일정했으나 부 불안정형-모 안정형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이 교사관계가 낮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이 교사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애착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결합이 일치되는 경우에는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화됨을 시사하며,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Kim, 1999; Laible & Carlo & Roesch, 2004).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아동들은 교사들과 상호작용하고 기능적으로 관계하며, 학교규칙 준수, 학습활동적응과 학교 행사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교사관계에서 친밀감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아동의 부모와의 애착유형이 부 불안정형-모 안정형, 부 안정형-모 안정형, 부 안정형-모 불안정형, 부 불안정형-모 불안정형 순으로 교사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Kim(199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교사관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인 경우 자기 자신만의 아집으로 인해 교사관계에서의 갈등이 높아 오히려 교사와의 관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부모애착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와 의사소통을 잘하는 자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감정이나 기분을 잘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고 한 Kim(2011)의 연구와 연관 지어 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더라도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을 통해 형성된 높

은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능력으로 인해 교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청소년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이 학교생활(친구관계,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력 중 모애착의 영향력이 부애착 보다 크다고 한 연구결과와 달리 아버지 애착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아버지와 애착관계가 높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또래관계가 좋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역할모델이 되어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대상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져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만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와의 애착 결합형태와 자아존중감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가 이후의 발달인 청소년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인 관점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 안정-부 불안정 집단이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불안정한 집단보다 친구관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의 애착이 아동의 친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아버지와 애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안정형, 불안정형으로 결합하여(부 안정형-모 안정형, 부 안정형-모 불안정형, 부 불안정형-모 안정형, 부 불안정형-모 불안정형) 살펴보았는데, 후속연구

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다른 경우를 세분화하여(애착의 수준별, 유형별 등) 영향력을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Allen, J. P. (2008). The attachment system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pp. 419-435). New York, N. Y.: Guilford Press.
- Al-Yagon, M. (2012). Adolesc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Socioemotional and behavioral functioning and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fathers, mothers, and teach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10), 1294-1311.
- Al-Yagon, M. (2014). Child - mother and child - father attachment security: Links to internalizing adjustment among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5(1), 119-131.
- Al-Yagon, M., Kopelman-Rubin, B., Klomek, A. B., & Mikulincer, M. (2016). Four-model approach to adolescent-parent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loneliness, school belonging, and teacher appraisal. *Journal of Personal Relationships*, 23(1), 141-158.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ak, B. G., Lee, S. Y., & Song, J. H. (2010). Development of ego-resiliency enhancement program and testing its effects. *Journal of the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24(1), 61-82.
- Bar-Haim, Y., Dan, O., Eshel, Y., & Sagi-Schwartz, A. (2007). Predicting children's anxiety from early attachment relationship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8), 1061-1068.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Bretherton, I. (2010). Father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A review.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0(1&2), 9-23.
- Bretherton, I., & Munholland, K. A. (2008).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Elaborating a central construct in attachment theory.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102-127). New York: Guilford Press.
- Buhrmester, D.,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4), 1101-1113.
- Chae, J. Y. (2009). *Influences of fathers's attachment representations and parenting behaviors on preschoolers' attachment representations and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Cho, Y. J. (2002). Effects of initial adjacent relationships on problem behavior: Social support and social efficacy. *Journal of Graduate School Student Association*, 35, 187-208.
- Choi, E. S. (2003).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parenting behavior of the fa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Dankook, Seoul, Korea.

- Engels, R. C., Finkenauer, C., Meeus, W., & Dekovic, M. (2001). Parental attachment and adolescents' emotional adjustment: The role of interpersonal tasks and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28-439.
- Freeman, H., Newland, L. A., & Coyl, D. D. (2010). New directions in father attach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0*(12), 1-8.
- Gomez, R., & McLaren, S. (2007). The inter-relations of mother and father attachment, self-esteem and aggression during late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33*(2), 160-169.
- Green, J., Stanley, C., Smith, V., & Goldwyn, R. (2000). A new method of evaluating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young school-age children: The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2*(1), 48-70.
- Grossmann, K. E., Grossmann, K., Fremmer-Bombik, E., Kindler, H., Scheurer-Englisch, H., & Zimmerman, P. (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s: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play as a pivotal variable in a 16-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3), 207-331.
- Gullone, E., & Robinson, K. (2005).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 R) for children: A psychometric investigation.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 Practice, 12*(1), 67-79.
- Hamre, B. K., & Pianta, R. C. (2006).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In G. G. Bear & K. M. Minke(Eds.), *Children's needs III: Development, prevention, and intervention(pp.59-71)*. Washington, DC, US: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 Harter, S. (1985).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Irons, C., & Gilbert, P. (2005). Evolved mechanisms in adolescent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The role of the attachment and social rank systems. *Journal of Adolescence, 28*(3), 325-341.
- Jang, H. S. (2008).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attachment on sibling and friend relationship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69-87.
- Jeon, B. J. (1974). Self-esteem tool measurement. *Journal of Yonsei, 11*(1), 107-130.
- Jeon, K. S., & Lee, K. S. (2018). Parent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 Self-esteem as a mediator.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4*(1), 327-349.
- Jhon, Y. J., & Yoo, M. S.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s playful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ttachment and a child's school adjust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187-202.
- Jung, J. E., & Kim, M. T. (2011). *Child's self esteem*. Seoul: Knowledge Channel Sigongsa.
- Jung, S. H.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ity of attachment,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J. Y. (2013).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school adapta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ego-resilience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K. (1999).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children and self-esteem*.

-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S. (2005). *The influence of internet messenger on the friendship among elementa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an University, Cheonan, Korea.
- Kim, H. Y. (2010). *A study on the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about students' attachment to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Korea.
- Kim, J. A. (2009). *Relationship among attachment to parents, self-efficacy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 Kim, J. M. (1999). *The relationship among attachment security, self-percep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Korea.
- Kim, M. S. (2018). *Effects of attachment with parents on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 Kim, S. M. (2018). *Effects of attachment with parents on children's & adolescents' sense of sel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sychosocial adjustment: Conceptual model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 Kim, Y. H. (2011). *The relationship of self-efficiency, interpersonal relations and parental attach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Cheonan, Korea.
- Konshina, T. (2016). Parental involvement in the vocational self-determination of adolescents with different types of attachment to mother.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33(17), 397-402.
- Kwak, E. Y. (2011). *Father attachment, mother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aible, D. J., Carlo, G., & Roesch, S. C. (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rs. *Published in Journal of Adolescence*, 27(6), 703-716.
- Liable, D., & Thompson, R. A. (2007). Early socialization: A relationship perspective. In J. E. Grusec & P. D. Hastings(Eds.),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pp. 181 -207). New York, London: Guilford Press.
- Lee, G. S, Chung, H. H. (2006).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attitude,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peer relationship on psychological maladjustment in early school ag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2), 575-593.
- Lee, H. S., & Lim, J. H. (2015). *SPSS manual*. Seoul: Jyphyunjae.
- Lee, J. E. (2006). *Influence of high school student's peer attachment, self differentia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Lee, M. H. (2011). Mother-child attachment and mother's ego-resilience as it relates to adjustment of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Parent Education*, 3(1), 65-80.
- Lee, S. H. (2005). *The relations between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school life adjustment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H. (2006). *The effects of children's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and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J., & Shin, J. Y. (2006).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school life maladjustment, and parental educational attitude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5, 111-127.
- Lim, J. B. (2010). *The effect of the attachment and communication types between parent and children on self-esteem of elementar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of Education, Daejeon, Korea.
- Lynch, M., & Cicchetti, D. (1992). Maltreated children's reports of relatedness to their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1992(57), 81-108.
- McCarroll, E. M., Lindsey, E. W., MacKinnon-Lewis, C., Chambers, J. C., & Frabutt, J. M. (2009). Health status and peer relationships in early adolescence: The role of peer contact,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4), 473-485.
- McDevitt, T. M., & Ormrod, J. E. (2010).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Pearson College Division.
- Moseley, R. K., & District, L. S. R. (1996). *Report on the conservation status of lepidium davisi*. Bureau of Land Management, Idaho State Office.
- Muris, P., Meesters, C., & van den Berg, S. (2003).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nd correlates of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and perceived parental rearing in normal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2(2), 171 - 183.
- Oh, B. N. (2014). *A study on connections among the parental attachment, peer relationships, and usage of class homepag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Oppenheim, D., Koren Karie, N., & Sagi Schwartz, A. (2007). Emotion dialogue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at 4.5 and 7.5 years: Relations with children's attachment at 1 year. *Child Development*, 78(1), 38-52.
- Paquette, D. (2004). Theorizing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Mechanisms and developmental outcomes. *Human Development*, 47(4), 193-219.
- Paquette, D., & Bigras, M. (2010). The risky situation: A procedure for assessing the father-child activation relationship.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0(1 - 2), 33-50.
- Park, E. H. (2015). *The effects of parents'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Incheon, Korea.
- Park, W. M., & Cheon, S. M. (2008). A study on parent attachment,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 of the 6th grade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School Psychology*, 5(1), 41-59.
- Parke, R. D. (2000). Father involvement: A developmental psychological perspective. *Marriage & Family Review*, 29(2-3), 43-58.
-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In J. Ciarrochi., & L. Bilich.(Eds.).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pp. 61-62)*. School of

- Psychology University of Wollongong.
- Seo, H. N. (2013). *The effects of parental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elf-esteem on school age boys' and girl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eo, S. W., & Lee, D. K. (2014).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on a child's social development: the mediation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9(2), 157-178.
- Song, H., Thompson, R. A., & Ferrer, E. (2009). Attachment and self evaluation in chinese adolescents: Age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Adolescence*, 32(5), 1267 - 1286.
-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51, 72.
- Steinberg, L. (2001). We know some thing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1), 1-19.
- Sung, E. J. (2009). *A study on the path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internet messenger use and personal relation and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 in highschool mal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ungji University, Seoul, Korea.
- Van Ijzendoorn, M. H., Sagi, A., & Lambermon, M. W. E. (1992). The multiple caretaker paradox: Data from Holland and Israel.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92(57), 5 - 24.
- Wang, H. O., & Kim, K. W.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attachment stability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1(2), 77-88.
- Wyrick, A. J., & Rudasill, K. M. (2009). Parent involvement as a predictor of teac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in third grad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0(5), 845-864.
- Yoon, J. Y. (2001). *Study on the juvenile's self-differenti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Yun, M. S. (2010). *The effects of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personality traits on college students' friendships. : The moderating effect of personality trai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접 수 일: 2018. 11. 12

심 사 일: 2019. 11. 26

게재확정일: 2019. 04. 23